

청소년의 부모 갈등 평가에 따른 고통 지각과 정서 규제 전략*

이 순 형 이 강 이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부모갈등의 특성과 원인,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 평가에 따른 청소년의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생 141명, 중학교 2학년생 173명, 고등학교 2학년생 196명, 총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은 부모갈등의 특성 평가, 원인 평가 및 대처효율성 평가에 따라 그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달리 지각한다. 구체적으로 부모갈등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부모갈등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릴수록,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을 낮게 평가할수록, 청소년들은 고통을 더 지각한다.

둘째, 청소년은 부모갈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정서규제 전략을 달리 선택한다. 부모갈등의 특성 평가에 따라 회피전략의 사용에 차이를 보이고, 부모갈등의 원인 평가에 따라 개입전략 및 무반응전략의 사용에 차이를 보인다.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 평가에 따라 청소년은 개입전략, 회피전략 및 무반응전략 사용에서 모두 차이가 있다.

셋째, 청소년은 학년과 성별에 따라 부모갈등에 따른 고통을 다르게 지각하고 정서규제 전략도 다르게 선택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통지각과 회피전략 및 무반응전략의 사용이 증가하는 반면 개입전략의 사용은 감소한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고통을 더 지각하고 개입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핵심어 : 부모 갈등 평가·고통 지각·정서 규제 전략

문제의 제기

개인이 타인의 느낌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

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서를 인지발달의 하위 영역으로 접근하던 초기의 연구경향과는 달리 최근 들어 정서와 인지를 동일한 수준에서 바라보는 정서의 기

능적 관점(Kopp, 1989)이 대두하면서 대인간의 역할 수행에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정서의 적응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서의 주요 기능으로 개인이 자기자신과 타인에 의해 유발된 정서적 경험이나 표현을 통제하는 정서규제의 중요성(Campos, Campos & Barrett, 1989)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은 가족구성원과의 일상생활을 통해 다양한 정서적 자극을 경험하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자극의 하나로 흔히 부부싸움이라고 불리는 부모갈등을 들 수 있다. 부모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서로 고통을 지각할 것이라는 견해와, 부모갈등을 일상적 현상으로 보아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두 견해가 있다. 우선 전자의 견해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부모갈등은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물리적, 신체적 공격성을 동반한 심한 몸싸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정서를 나타내는 부모간의 다툼이다. 초등학교 자녀가 경험하는 35가지의 스트레스 사건 중 부모의 부부싸움이 부정적인 감정의 4위로 평가된 연구결과(신은영·김경연, 1996)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갈등은 자녀에게 심리적 불안, 슬픔, 두려움, 위협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제공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서 자녀는 고통을 감지한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갈등을 자신에게 위협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고통을 지각할 뿐만 아니라 고통지각을 규제하기 위해 정서규제 전략을 사용한다(Grych & Fincham, 1990).

부모갈등에 대한 유아 및 아동의 지각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유아들은 부모갈등에 따른 고통지각과 개입이 더 많지만 아동들은 서서히 부모갈등에 덜 개입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김소향, 1994; 안혜준, 1994; Covell & Miles, 1992; Cummings, Zahn-Waxler & Radke-Yarrow, 1981; Rossman & Rosenberg, 1992). 부모갈등에 대한

자녀의 대처가 이처럼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어린 아동일수록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갈등으로 인해 상처받기 쉽다는 견해와, 이와는 반대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정서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부모갈등에 따른 고통과 개입의 압력이 더 크게 지각되고 상처도 쉽게 받는다는 것이다(Emery, 1982). 부모갈등에 대한 지각의 성차에 대해서는 아동의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연구결과(Grych & Fincham, 1993)와 남아보다 여아가 고통을 더 지각하고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김소향, 1994)가 공존하고 있다. 갈등을 관리하는 아동의 능력은 성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남자는 개인적인 목표 획득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남아보다 대인지향적인 여자는 대인관계에서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시한다(Putallaz & Sheppard, 1992). 이처럼 부모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연령별,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정되기 때문에 부모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은 유아기 및 아동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갈등이 자녀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두번째 견해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정서는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을 경험하는 개인, 그리고 개인의 평가가 상호연관되는 방식(Campos et al., 1989)을 반영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단순히 부모간의 불화에 노출된다고 해서 이런 경험 자체가 청소년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청소년이 부모갈등에 대해 지각한 내용은 부모가 직접 자신들의 부부갈등에 대해 응답한 내용보다 청소년의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ersma, Forehand & McCombs, 1988). 또한 부모갈등이 청소년의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

락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갈등에 대한 자녀의 평가에 의해 중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rych & Fincham, 1990). 따라서 부모갈등이 청소년의 고통 지각과 정서규제 전략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갈등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평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청소년의 부모갈등 평가는 특성 평가, 원인 평가 및 대처효율성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부모갈등의 강도 평가 및 원인 평가와 관련해서 이루어졌다. 부모갈등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유아 및 아동의 분노, 두려움, 슬픔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김소향, 1994; Cummings et al., 1981; Rossman & Rosenberg, 1992), 부모갈등의 강도 평가는 유아 및 아동의 고통 지각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와 별개로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서 정서규제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는 부모갈등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부모다툼의 현장을 떠나버리는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하거나(Grych & Fincham, 1993) 아동이 직접 부모의 싸움을 말리는 개입전략을 더 사용한다(김소향, 1994; Cummings, Pellegrini, Notarius & Cummings, 1989)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다. 그런데 부모갈등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으로서는 부모갈등의 강도 이외에 부모갈등의 빈도와 해결방법을 들 수 있다. 부모갈등의 빈도, 강도 및 해결방법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상호관련성을 보여서(Grych, Seid & Fincham, 1992) 아동은 부모갈등의 빈도를 많이 지각할수록 부모갈등의 강도도 높게 지각하고 부모갈등의 해결방법도 부정적으로 지각한다. 따라서 부모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 사용을 중재하는 부모갈등의 강도, 빈도, 해결방법 평가를 특성 평가로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부모갈등의 특성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부모갈등의 원인 평가를 보면, 부모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유아 및 아동의 고통지각과 개입전략 사용은 증가한다(김소향, 1994; 안혜준, 1994; Covell & Miles, 1992; Grych & Fincham, 1993)고 나타났다.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인이 보이는 정서상태의 원인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됨(Gnepp, 1983)을 고려할 때, 청소년은 유아 및 아동보다 부모갈등의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고통지각과 개입전략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부관계에서 갈등은 일상적으로 유발되고 해결된다고 보고 부모의 부부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갈등에 따른 고통을 덜 지각하고 회피전략이나 무반응전략을 더 많이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 사용을 중재하는 부모갈등 평가 요인으로 청소년의 대처효율성 평가를 예상할 수 있다. 대처효율성은 일종의 통제에 대한 신념(Lazarus & Folkman, 1984)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개입 또는 접근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회피 또는 무시하기와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Folkman & Lazarus, 1984). 아동이 부모갈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평가할 때, 아동은 무력감을 느끼거나 부모갈등 상황으로부터 회피한다(Grych & Fincham, 1993). Rossman과 Rosenberg(1992)는 부모갈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아동의 믿음이 부모갈등으로 인해 야기된 아동의 스트레스에 완화효과를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갈등에 대한 통제신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은 부모갈등에 대한 통제신념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동의 통제신념이 부모갈등에 따른 스트레스에 완충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대처효율성 평가에 따라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 사용에 차이가 예상되므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에 의해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가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1. 부모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 사용은 청소년의 부모갈등 특성 평가 및 학년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 사용은 청소년의 부모갈등 원인 평가 및 학년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 사용은 청소년의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 평가 및 학년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의 중산층 거주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의 남녀학생 510명이다. 조사대상의 학년 및 성별 분포는 초등학교 6학년생의 경우 전체 141명(27.6%) 중 남학생이 75명, 여학생이 85명이며, 중학교 2학년생의 경우 전체 173명(34.0%) 중 남학생이 88명, 여학생이 85명이다. 고

등학교 2학년생의 경우 전체 196명(38.4%) 중 남학생이 92명, 여학생이 104명이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질문지의 문항과 연구자가 개발한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본조사용 질문지를 구성해서 사용했다.

예비조사를 통해 부모갈등을 경험할 때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는지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10가지의 느낌이 선정되었다.¹⁾ 이를 이용해서 연구자가 부모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고통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했다. 질문지 문항의 신뢰도 지수는 Cronbach' α 가 .87로 나타났다.²⁾

부모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 조사지는 Grych와 그의 동료들(1992)이 개발한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 중에서 부모갈등의 강도, 빈도, 해결방법, 내용, 자기비난 및 대처효율성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물어보는 문항을 연구자가 번역해서 사용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갈등의 발생 빈도에 대한 문항 4개, 부모갈등의 강도에 대한 문항 6개, 부모갈등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지 알아보는 문항 6개, 부모갈등의 내용에 대한 문항 4개, 부모갈등에 대해 자기비난을 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 3개,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 평가를 알아보는 문항 5개로,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³⁾ 이 조사도구의 신뢰도 지수는 Cronbach' α 가 .88이다.

1) 선정된 10가지의 느낌은 '무섭다', '기분이 나쁘고 언짢다', '걱정된다', '눈물이 나고 슬프다', '아무런 느낌도 없다', '불안해서 가슴이 편다', '큰일이 날 것 같다', '아무렇지도 않다', '속상하다', '신경쓰지 않는다'이다.

2) 본문에서 제시된 신뢰도 지수들은 본조사 집단을 대상으로 계산된 것이다.

부모갈등에 대해 사용하는 청소년의 정서규제 전략이 어떤 범주로 구분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통해 부모갈등을 경험할 때의 청소년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응답내용을 연구자 및 아동학 전공자 1인이 분류한 결과, 부모갈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개입전략과 부모갈등이 발생한 장소를 피해버리는 회피전략 및 부모갈등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반응전략으로 나뉘었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각 전략별 응답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부모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정서규제 전략을 조사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했다.⁴⁾ 질문지 문항별 Cronbach' α 계수는 각각 .61, .63, .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질문지의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구성했고, 각 영역별 점수는 해당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한 값을 이용했다. 질문지 문항의 내용타당도는 아동학 전공 교수 1인과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2인이 검토하여 3인이 일치한 문항만을 선택해서 사용했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자료수집 절차를 보면, 먼저 1996년 6월 10일~15일에 걸쳐 본조사용 질문지 구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학년별로 남녀학생을 각 20명씩 선정, 총 1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부모갈등을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모갈등의 유무

를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의 90%이상이 부모가 싸우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해서 부모갈등이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사건임을 확인했다. 둘째, 부모가 다투거나 싸우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나는대로 적도록 해서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1명이 비슷한 응답유형끼리 분류했다. 분류자간 일치도는 95%로 나타났고, 분류자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응답은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응답자의 42.3%가 “무섭고,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범주에 속하는 응답을 했고, 19.2%는 “별다른 느낌이 없고, 걱정되지도 않는다”는 범주에 속하는 응답을 했다. 그리고 14.1%는 “기본나쁘고, 속상하다”는 범주에 속하는 응답을 했다. 위의 3가지 범주에 속하는 응답내용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10가지의 느낌을 선정해서 질문지를 구성했다. 셋째, 부모가 다투거나 싸우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적도록 해서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1명이 비슷한 응답유형끼리 분류했다. 분류자간 일치도는 92%로 나타났고, 분류자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응답은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응답자의 60.3%가 회피전략의 범주에 속하는 응답을 했고, 23.1%는 개입전략의 범주에 속하는 응답을 했다. 그리고 17.9%의 응답자는 무반응 전략의 범주에 속하는 응답을 했다. 각 전략의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을 연구자가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서 총 14개의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했다.

본조사는 1996년 7월 3일~25일에 걸쳐 강남구에 위치한 Y초등학교 6학년 5개반과 강남구에 위치한 J여중 및 J여고, 강동구에 위치한 B중 및

3)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Grych와 동료들(1992)의 논문을 참고할 것.

4) 개입전략은 ‘싸움을 말린다’, ‘부모가 싸우는 앞에서 물어버린다’, ‘부모가 싸우는 앞에서 내가 더 화를 낸다’, ‘부모를 화해시킨다’, ‘주위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의 5문항, 회피전략은 ‘내방으로 들어가버린다’, ‘잠을 자거나 자는 척 한다’, ‘집 밖으로 나가버린다’, ‘방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다’, ‘싸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전자오락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의 5문항, 무반응전략은 ‘상관하지 않고 내 할 일을 한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 ‘싸우거나 말거나 신경쓰지 않는다’, ‘그냥 놔둔다’의 4문항으로 구성했다.

B고에서 2학년 각 2개반씩을 선정, 총 13개반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교실에 들어가서 조사내용과 응답방법을 설명한 후 각자 응답하게 하였으며, 응답시간은 평균 20-30분이 소요되었다. 총 555부의 질문지가 수거되었으나 부적절한 경우나 부실기재한 응답 45부를 제외하고 총 510부의 질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되었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포, 변량분석과 추후검정으로 Scheffe 검증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및 해석

부모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 수준에 따라서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모갈등의 특성 평가($M=34.28$, $SD=11.74$), 부모갈등의 원인 평가($M=14.86$, $SD=6.12$),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 평가($M=12.93$, $SD=4.37$)에 대해 각각 평균 $\pm 1/2$ 표준편차의 상하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했다.⁵⁾ 본 장에서는 부모갈등의 평가요인별로 집단1과 집단2의 고통지각 및 정서규제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 부모갈등 특성 평가에 따른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

연구문제 1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갈등의 빈도를 적게, 강도를 낮게, 해결방법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1과 부모갈등의 빈도를 많이, 강도를 높게, 해결방법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2

표 1. 비교집단의 점수 분포, 빈도 및 백분율⁶⁾

구 분	점수 분포	빈도(%)
특성평가(N=461)		
집단 1	16-30	192(41.6)
집단 2	40-77	125(27.1)
원인평가(N=486)		
집단 1	7-12	195(40.1)
집단 2	17-35	156(32.1)
대처효율성 평가(N=470)		
집단 1	15-25	144(30.6)
집단 2	5-11	236(42.3)

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했다. 집단1과 집단2의 고통지각 및 정서규제 전략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집단 1과 집단 2를 대상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은 부모갈등의 특성을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따라 고통지각($F=36.708$, $df=1$, $p<.001$)과 회피전략의 사용($F=17.995$, $df=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개입전략과 무반응전략의 사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집단1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갈등의 빈도를 많이, 강도를 높게, 해결방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집단2가 부모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지각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부모갈등의 현장을 피해버리는 회피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갈등의 강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고통지각과 회피전략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김소향, 1994; 안혜준, 1994; Grych & Fincham, 1990)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부모갈등이 심한 경우에 아동은 위협을

5) 이 연구에서는 부모갈등의 3가지 평가요인별로 각각 비교집단을 선정해서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비체계적 오차에 따른 결과해석의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6) 부모갈등에 대한 평가 요인에 따라 전체 빈도 수가 다른 것은 응답자가 질문지의 전체 문항 중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을 누락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 2. 부모갈등 특성 평가에 따른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고통 지각		개입 전략		회피 전략		무반응 전략	
	M	SD	M	SD	M	SD	M	SD
<집단 1>								
초등6학년(n=57)	30.41	9.31	10.39	4.03	9.75	4.01	8.14	3.93
남학생(n=28)	34.04	8.89	9.77	3.64	10.04	3.96	7.61	3.56
여학생(n=29)	26.92	8.46	10.96	4.36	9.48	4.09	8.68	4.26
중2학년(n=67)	26.61	8.42	8.24	3.64	9.53	4.02	9.07	4.40
남학생(n=30)	26.17	8.40	8.73	3.79	8.86	3.4	8.90	5.01
여학생(n=37)	26.95	8.54	7.84	3.52	0.05	4.37	9.22	3.92
고2학년(n=68)	28.46	7.82	7.79	3.03	10.91	3.57	8.82	3.51
남학생(n=31)	26.34	7.01	7.32	3.05	11.77	3.53	9.29	3.73
여학생(n=37)	30.17	8.12	8.19	3.99	10.17	3.48	8.43	3.32
<집단 2>								
초등6학년(n=18)	33.88	6.28	8.35	4.77	11.50	3.63	8.72	3.69
남학생(n=13)	33.42	6.87	8.00	4.79	12.36	3.61	8.69	4.31
여학생(n=5)	35.00	5.10	9.20	4.66	9.60	3.21	8.80	1.48
중2학년(n=46)	34.98	9.48	9.09	3.95	11.98	4.10	9.75	4.05
남학생(n=22)	31.40	9.34	8.76	3.35	12.73	4.11	11.10	4.49
여학생(n=24)	38.23	8.55	9.38	4.47	11.29	4.05	8.52	3.22
고2학년(n=61)	33.93	9.70	8.38	3.24	12.90	5.20	9.42	3.88
남학생(n=27)	32.85	7.19	7.96	2.79	13.22	4.65	9.41	3.13
여학생(n=34)	34.79	11.35	8.73	3.56	12.65	5.65	9.42	4.45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Grych & Fincham, 1993) 위협을 높게 지각함에 따라 청소년은 부모갈등 상황을 도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은 학년에 따라 개입전략의 사용($F=6.240$, $df=2$, $p<.01$)과 회피전략의 사용($F=3.080$, $df=2$, $4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추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2학년생에 비해 부모갈등에 개입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회피전략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부갈등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인지할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해 나감에 따라 부모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고통지각은 집단1과 집단2에서 학년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4.848$, $df=2$, $p<.01$)를 보였다. <그림 1>을 보면, 집단1의 경우에 여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통지각의 수준이 높아지나 남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고통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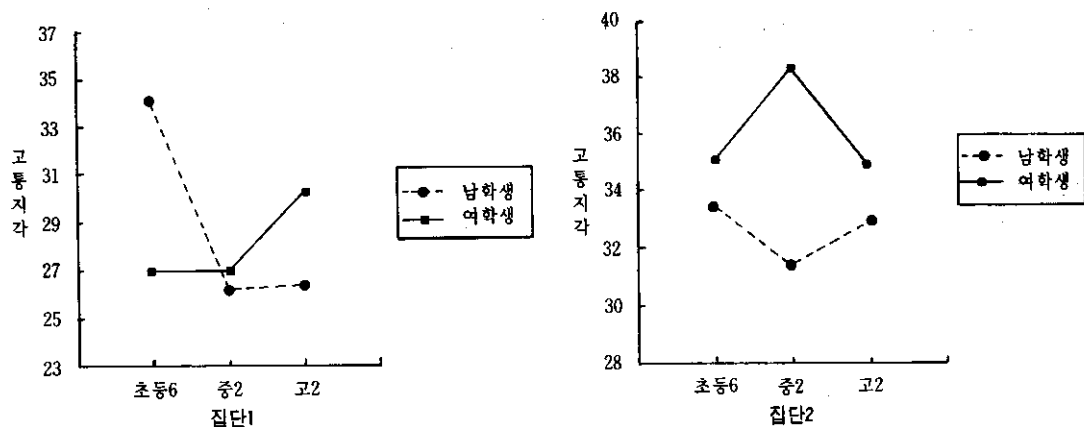


그림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고통지각의 상호작용 효과

수준이 높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통지각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2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고통지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2학년생의 경우, 남학생은 다른 학년보다 고통지각 수준이 낮아졌지만 여학생은 다른 학년보다 고통지각 수준이 높았다. 여학생의 고통지각 수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남학생의 고통지각 수준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타인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유지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사회적 관계의 향상을 중요시해서(Putallaz & Sheppard, 1992) 심한 부모갈등에 따른 부모의 불화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무반응 전략의 사용에서는 청소년의 부모갈등 특성 평가나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부모갈등 원인 평가에 따른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

연구문제 2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낮은 집단1과 상대적으로 부모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

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은 집단2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했다. 집단 1과 집단 2의 고통지각 및 정서규제 전략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집단 1과 집단 2를 대상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은 부모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따라 고통지각에서 유의한 차이($F=7.500, df=1, p<.01$)를 보였고 개입전략의 사용($F=27.111, df=1, p<.001$)과 무반응전략의 사용($F=4.207, df=1, p<.05$)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회피전략의 사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모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경향이 높은 청소년이 부모갈등의 원인에 대한 내적 귀인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에 비해 고통을 더 많이 지각한다. 정서규제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는, 집단2가 집단1에 비해 개입전략은 많이 사용하는 반면 무반응전략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갈등의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뿐더러 자아정체감이 발달하면서 갈등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부모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갈등의 원인제공자로서

표 3. 부모갈등 원인 평가에 따른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의 빈도 및 표준편차

	고통 지각		개입 전략		회피 전략		무반응 전략	
	M	SD	M	SD	M	SD	M	SD
<집단1>								
초등6학년(n=57)	30.57	8.16	8.85	3.64	10.05	3.81	8.11	4.43
남학생(n=30)	30.93	8.58	8.00	2.99	10.47	3.62	8.17	4.24
여학생(n=27)	30.19	7.82	9.77	4.09	9.59	4.04	8.04	4.69
중2학년(n=57)	27.50	9.81	7.67	3.24	10.68	4.29	10.47	4.82
남학생(n=25)	25.27	9.78	7.24	2.73	10.96	4.64	11.88	5.49
여학생(n=32)	29.03	9.69	8.00	3.59	10.47	4.06	9.38	3.97
고2학년(n=81)	31.65	8.54	7.57	2.56	11.55	4.53	9.28	3.99
남학생(n=28)	29.29	5.77	7.68	2.28	11.39	4.46	8.89	3.73
여학생(n=53)	32.94	9.54	7.51	2.71	11.63	4.61	9.49	4.14
<집단2>								
초등6학년(n=39)	32.88	8.12	11.16	4.56	9.92	3.88	7.76	3.77
남학생(n=21)	34.78	5.59	9.25	3.64	10.63	4.35	8.05	4.01
여학생(n=18)	30.60	10.13	13.41	4.60	9.17	3.28	7.41	3.54
중2학년(n=64)	33.02	9.11	10.03	3.94	10.81	3.97	8.40	3.92
남학생(n=32)	33.53	8.02	10.20	3.76	10.97	3.85	8.12	3.80
여학생(n=32)	32.50	10.19	9.87	4.16	10.66	4.14	8.70	4.09
고2학년(n=53)	31.80	9.56	8.65	3.51	12.23	4.69	9.14	3.54
남학생(n=29)	30.59	9.05	7.93	2.87	12.32	3.72	9.43	2.99
여학생(n=24)	33.17	10.12	9.50	4.03	12.13	5.70	8.78	4.17

책임을 느껴서 고통을 더 지각하고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갈등에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은 학년에 따라 회피전략의 사용($F=5.459$, $df=2$, $p<.01$)과 무반응전략의 사용($F=139$, $df=2$,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추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6학년생은 고2학년생에 비해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중2학년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에 비해 무반응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나 아동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갈등에 대한 민감성과 개입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Cummings et al., 1981)와 불일치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은 유아 및 아동에 비해 가족 이외의 사람, 그 중에서도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부모갈등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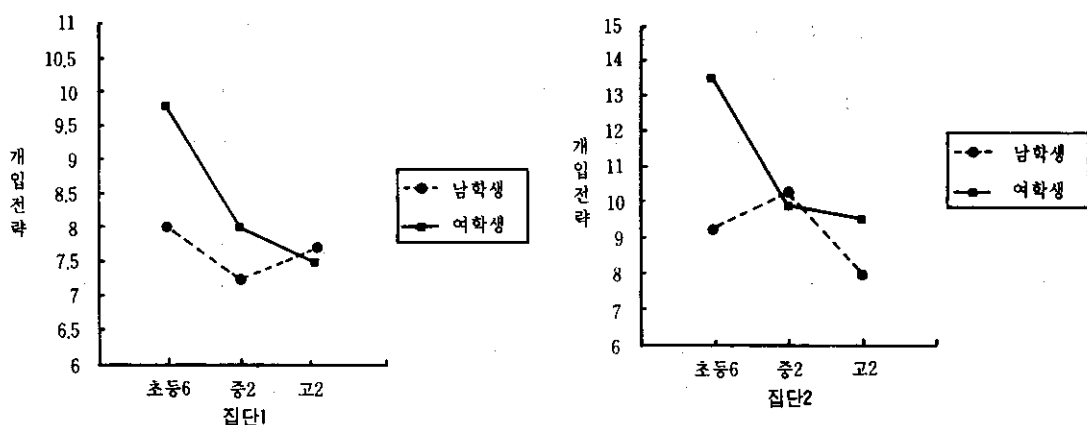


그림 2. 학년과 성별에 따른 개입전략 사용의 상호작용 효과

부모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개입전략 사용은 집단 1과 집단 2에서 학년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4.219$, $df=2$, $p<.05$)를 보였다. 〈그림 2〉를 보면, 부모갈등을 내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은 집단 2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입전략의 사용이 감소하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2학년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히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개입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갈등을 내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집단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1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입전략의 사용이 감소하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입전략의 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은 선행연구결과(안혜준, 1994; Cummings et al., 1989)와 일치한다. 부모갈등의 원인을 자신에게 귀인하는 경향이 높은 중2학년의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보다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쉽게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Emery, 1982)이 있는 이 시기의 남학생이 원인제공자인 자신이 직접 나서서 부

모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 대처효율성 평가에 따른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

연구문제 3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 평가가 낮은 집단1과 상대적으로 대처효율성 평가가 높은 집단2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했다. 집단1과 집단2의 고통지각 및 정서규제 전략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4〉와 같다.

집단1과 집단2를 대상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은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따라 고통지각에서 유의한 차이($F=37.136$, $df=1$, $p<.001$)를 보였고 개입전략의 사용($F=12.876$, $df=1$, $p<.001$)과 회피전략의 사용($F=59.766$, $df=1$, $p<.001$) 및 무반응전략의 사용($F=12.719$, $df=1$, $p<.001$)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집단1에 비해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을 높게 평가하는 집단2의 청소년들이 고통을 덜 지각하고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회피전략과 무반응전략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학년에 따라 회피전략의 사용($F=5$.

표 4. 부모갈등 대처효율성 평가에 따른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고통 지각		개입 전략		회피 전략		무반응 전략	
	M	SD	M	SD	M	SD	M	SD
<집단1>								
초등6학년(n=29)	35.72	7.78	8.36	3.93	11.11	3.20	8.34	3.46
남학생(n=20)	36.45	7.96	7.63	3.92	11.72	2.67	8.80	3.35
여학생(n=9)	34.11	7.54	9.89	3.69	9.89	3.95	7.33	3.67
중2학년(n=47)	34.19	8.86	8.29	3.69	12.70	4.21	10.26	3.97
남학생(n=23)	32.50	7.74	8.24	2.86	12.82	4.09	10.91	4.39
여학생(n=24)	36.65	9.66	8.33	4.35	12.58	4.39	9.61	3.47
고2학년(n=68)	34.06	9.44	7.28	2.70	13.91	5.09	9.99	3.68
남학생(n=27)	32.41	7.16	7.07	2.77	15.19	4.57	10.04	2.95
여학생(n=41)	35.21	10.68	7.43	2.67	13.07	5.30	9.96	4.12
<집단2>								
초등6학년(n=61)	29.67	8.54	10.90	3.95	8.64	3.49	7.37	3.80
남학생(n=26)	31.83	8.44	9.44	3.55	8.84	3.67	7.38	3.85
여학생(n=35)	28.12	8.40	12.00	3.94	8.50	3.40	7.36	3.81
중2학년(n=72)	27.70	8.82	9.11	3.55	9.32	3.79	8.14	4.41
남학생(n=34)	29.28	9.84	9.55	3.67	8.65	3.23	7.06	4.07
여학생(n=38)	26.37	7.74	8.74	3.45	9.92	4.18	9.11	4.53
고2학년(n=66)	28.77	7.93	8.45	3.25	9.75	3.70	8.55	3.97
남학생(n=36)	26.32	7.09	7.57	2.83	10.06	3.42	8.60	3.93
여학생(n=30)	31.53	8.03	9.52	3.45	9.38	4.05	8.50	4.08

004, $df=2$, $p<.01$)과 무반응전략의 사용($F=3.218$, $df=2$,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추후검증 결과, 고 2학년생이 초등학교 6학년생에 비해 부모갈등을 회피하거나 부모갈등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반응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 자아의식이 점차 발달하면서 부모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해서 부모갈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반영한 것

이다.

부모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고통지각은 집단1과 집단2에서 학년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4.367$, $df=2$, $p<.05$)를 보였다. <그림 3>을 보면,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을 높게 평가하는 집단2의 경우, 남학생의 고통지각 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데 반해 여학생의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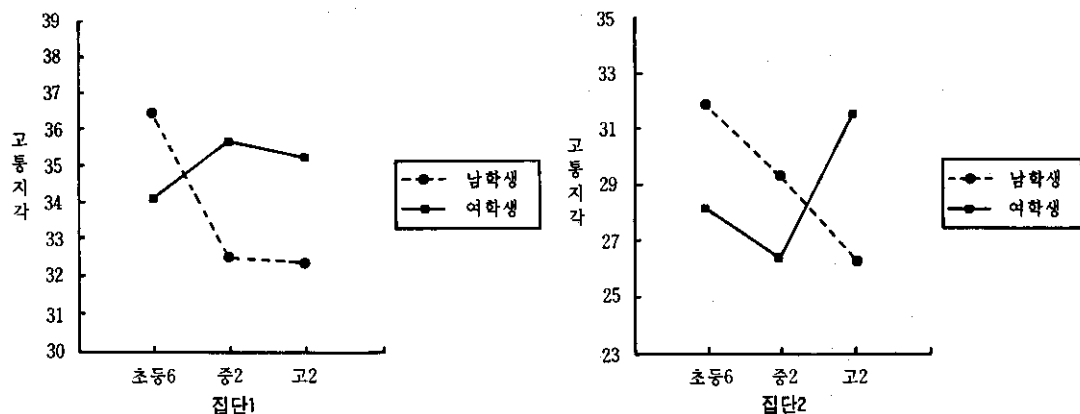


그림 3. 학년과 성별에 따른 고통지각의 상호작용 효과

지각 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져서 고2학년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고통지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을 낮게 평가하는 집단1도 남학생의 고통지각 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데 반해 여학생의 고통지각 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정서에 대한 공감은 여성적인 특성이라는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아와 여아의 공감발달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연진영, 1988)를 고려할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은

부모갈등에 따른 부정적 정서에 민감해지는 한편 남학생은 부모갈등에 대한 공감이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단, 대처효율성 평가 점수가 높은 집단2의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보다 고통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이 집단1의 또래 남학생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경향을 더 많이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개입전략 사용은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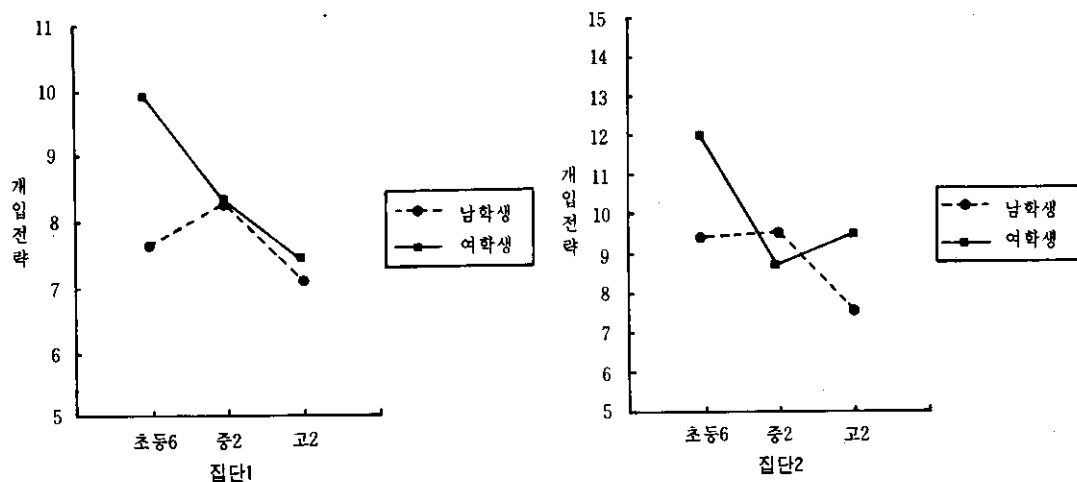


그림 4. 학년과 성별에 따른 개입전략 사용의 상호작용 효과

단 1과 집단 2에서 학년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F=4.448$, $df=2$, $p<.05$)를 보였다. <그림 4>를 보면 집단2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입전략의 사용이 감소하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하지만, 중2학년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1의 경우에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입전략의 사용이 감소하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남학생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개입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2에 속하는 중2 남학생의 경우, 높은 대처효율성 평가에 따른 갈등통제 신념의 증가와 자신의 정서상태를 행동으로 쉽게 표출하는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입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 및 논의

부모갈등의 특성 평가와 원인 평가 및 대처효율성 평가에 따른 청소년의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남녀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된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갈등 평가가 청소년의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부모갈등의 특성 평가, 원인 평가 및 대처효율성 평가에 따라 청소년은 고통을 달리 지각한다. 구체적으로 부모갈등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부모갈등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릴수록, 그리고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을 낮게 평가할수록 고통을 더 지각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부모갈등 평가에 따라 고통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부모-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쳐서 부부불화를 심하게 경험하는 부모는 자녀를 비일관적이고 덜 반응적으로 양육할 가능성이 있는데(Katz, Kramer & Gottman, 1992),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부모갈등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 고통지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청소년은 부모갈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정서규제 전략을 다르게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부모갈등의 특성 평가 수준에 따라 회피전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고 부모갈등의 원인 평가 수준에 따라 개입전략 및 무반응전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 평가 수준에 따라서는 개입전략, 회피전략 및 무반응전략의 사용이 모두 달랐다. 따라서 부모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가 정서규제 전략을 선택하는데 중재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부모갈등이 심한 가정의 아동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 분비가 높고 이러한 호르몬 증가를 규제하기 위해 타인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사건은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Katz et al., 1992). 청소년은 자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모갈등의 여파가 자신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을 배제해 버리는 방식으로 정서규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청소년은 학년과 성별에 따라 부모갈등에 따른 고통을 다르게 지각하고 개입전략의 사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통을 더 지각하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심리적 독립성의 발달차로 설명할 수 있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느린데, 이러한 시간차이가 또래여학생에 비해 자아발달이 늦는 초등학교 남학생의 고통지각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의 고통지각 수준은 점차 높아지는데 반해 남학생의 고통지각 수

준은 점차 낮아진다. 타인의 정서에 대한 공감은 여성적인 특성이라는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아와 여아에게서 나타나는 공감도의 차이를 설명한다(연진영, 1988)는 사실에서, 공감 발달의 성차가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입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개입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중2학년생의 경우 부모갈등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높은 집단과 대처효율성 평가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개입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부모의 불화에 대한 반응유형에 성차가 있음(Emery, 1982)을 고려할 때, 이 시기의 남학생은 일단 부모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이 이에 잘 대처할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한 경우에는 부모갈등에 따른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보다 쉽게 행동으로 표출하는 듯 하다.

넷째, 청소년은 학년에 따라 부모갈등에 대한 정서규제 전략을 달리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개입전략의 사용은 감소하는데 반해 회피전략과 무반응전략의 사용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발달할 뿐더러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다.

끝으로, 청소년의 부모갈등 특성 평가는 회피전략의 사용에만 영향을 미치고 부모갈등 원인 평가는 개입전략과 무반응전략의 사용에만 영향을 미친 반면 청소년의 부모갈등에 대한 대처효율성 평가는 개입전략, 회피전략 및 무반응전략의 사용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갈등의 객관적인 특성이나 원인 평가보다 청소년이 스스로 부모갈등을 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부모갈등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결정짓는데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

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신념이 스트레스의 효과를 완화시키는데 작용한다고 보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이 연구를 통해 정서와 인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부모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는 고통지각이라는 정서적 반응과 정서규제 전략의 사용이라는 인지적 반응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서와 인지를 모두 포함하며, 고통의 정서가 부모갈등의 평가라는 인지적 투입에 근거해서 조정됨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갈등처럼 감정적인 경험을 동반하는 스트레스 사건에서 정서적 지각과 인지적 평가가 관련됨을 밝혀 정서의 기능적 관점(Kopp, 1989)을 재확인시켜준다.

이 연구는 부모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사춘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의 양상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부모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가 청소년의 고통지각과 정서규제 전략의 선택에 중재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힘으로써 정서와 인지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가치 이외에 고려해야 할 점은 부모갈등이 청소년의 발달에 반드시 역기능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소년은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 고통을 지각하기도 하지만 그 갈등에 대처해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대인관계의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의 인지 기제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 소향(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대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신 은영, 김 경연(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4(4), 33-47.
- 안 혜준(1994). 부모의 분노감소를 위한 유아의 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연 진영(1988). 아동의 공감발달 및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9(2), 29-59.
-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94-402.
- Covell, K. & Miles, B. (1992). Children's beliefs about strategies to reduce parent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381-390.
- Cummings, J. S., Pellegrini, D. S., Notarius, C. I. & Cummings, E. M. (1989). Children's responses to angry adult behavior as a function of marital distress and history of interparental hostility. *Child Development*, 60, 1035-1043.
- Cummings, E. M.,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81).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expressions of anger and affection by others in the family. *Child Development*, 52, 1274-1281.
- Emery, R. E. (1992). Family conflicts and their developmental implications: A conceptual analysis of meaning for the structure of relationship.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270-29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2), 310-330.
- Gnepp, J. (1983). Children's social sensitivity: Inferring emotions from conflicting c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9(6), 805-814.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s: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Katz, L. F., Kramer, L. & Gottman, J. M. (1992). Conflict and emotions in marital,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122-14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pp, C.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 Y. :Springer.
- Putallaz, M. & Sheppard, B. H. (1992). Conflict management and social competence.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330-35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sman, B. B. (1992). School-age children's perception of coping with distress: Strategies for emotion regulation and the moderation of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8), 1373-1397.
- Rossman, R. & Rosenberg, M. (1992). Family stress and functioning in children: The moderation effects of children's beliefs about their control over parental confli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4), 699-715.
- Wiersma, M., Forehand, R. & McCombs, A. (1988). The relationship of early adolescent functioning to parent-reported and adolescent-perceived interparental conflic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707-718.

Distress perception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y parental conflict evaluation of adolescents

Soon Hyung, Yi · Kang Yi, Lee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stress perception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y parental conflict evaluation of adolescent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141 6-th graders in an elementary school, 173 8-th graders in middle schools, and 196 10-th graders in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ly.

Results indicated that (1) distress perception was related with parental conflict evaluation of adolescents, (2) characteristic evaluation of parental conflict by adolescents was related with the use of 'avoid' strategies, (3) cause evaluation of parental conflict by adolescents was related with the use of 'invention' and 'no response' strategies, (4) coping efficacy evaluation of parental conflict by adolescents was related with the use of 'invention', 'avoid' and 'no response' strategies.

Key Words : parental conflict evaluation · distress perception · emotion regulation strategy